

#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상황에는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 안에 있는 **LGBT** 문화는 훨씬 더 열악하고요. 이들의 문화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풍성해지고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은 커밍아웃에 있다고 생각해요.

김성진과의 인터뷰

2010년 6월 2일

친구사이 사무실, 대한민국 서울

**KIM Sungjin:** 저는 한국에서 약 10년째 문화기획자로 일하고 있어요. 축제나 행사나 문화콘텐츠를 주로 기획하고요. 2-3년 전부터는 게이 커뮤니티 내에서도 작게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친구사이의 일반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이나 그림 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죠. 지금은 게이들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Carlos Motta:** LGBT 커뮤니티 내에서 문화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작업이 만들어지는지, 예술가들이 다루는 이슈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기획하는 전시가 무엇인지요?

**KS:** 한국에는 LGBT 미술이나 문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커밍아웃해서 게이커뮤니티를 알게 되면서 가장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죠. 물론 개인적으로 자기의 성적체성을 밝히고 작업을 하는 사진작가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이를 이슈화한 작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작가들이 자신의 이슈를 가지고 전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예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술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예술을 통해서 스스로가 커밍아웃하는 거죠. 제가 문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일도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거예요. 그 첫 단계로 친구사이 내에서 약 두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였고요. 이것들이 나름 소정의 성과를 거두어서, 앞으로는 이런 기획 프로젝트를 계속 발전시키고 싶어요. 문화적 차원에서 개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CM:** 미술계는 게이 이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정체성이나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직접적으로 발언한 역사가 있나요? 만약 있다면, 그 중 몇 가지를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KS:** 물론 회화나 사진이나 설치나 대중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작은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작가들 중 많은 대중에게 어필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람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쪽에서 두 명의 커밍아웃한 작가들이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저도 이들의 작품을 보고는 싶은데, 전시가 내렸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었어요. 사진집이나 웹사이트처럼 작품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 그 경향성을 알았을 텐데 아쉽게도 저도 잘 모르겠네요.

**CM:** 그러면 좀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은 없나요?

# WE WHO FEEL DIFFERENTLY

## INTERVIEWS

**KS:**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작품에 대해 듣거나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어요.

**CM:** 어떤 종류의 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싶으신가요?

**KS:** 제가 친구사이에서 하고 싶었던 작업은 보통 게이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보통 사람의 이야기, 다양한 개인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라는 이분법을 나누어서 각자가 이런 특별한 점을 지닌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고, 각자의 특성과 스타일과 가치관을 갖고 산다는 것, 단지 그 중 한 부분이 게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나를 구성하고 있는 한 부분인 성적체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이랄까요? 제가 낸 골딘을 정말 좋아하는데, 말하자면 그녀의 다큐멘터리 사진작업 같은 것을 보통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CM:** 그런데 들어보니 그런 상황을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걸림돌이 되는 게 있나요? 왜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하지 못하는 건가요?

**KS:** 이런 작업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 게이들은 커밍아웃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작업을 하길 두려워하죠. 자기의 사진이 찍히거나, 자기 주변 친구들을 찍는 것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죠. 그래서 외국의 많은 작가들의 작업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아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의 주체가 작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아주 작게, 몇몇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작업을 공개했어요. 참여했던 사람들은 여러 변화를 겪었고, 지금도 그 작업을 소중한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작업을 서서히 발전시켜서 게이 커뮤니티만이 아니라 더 바깥으로 바가길 바라고 있어요. 그럼 일종의 집단적인 커밍아웃일 될 수도 있겠죠. 단지 한 개인에 조명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모아서 담는 거죠.

**CM:** 그러면 주로 내면적인 도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KS:** 첫 번째 의도는 그랬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기 표현 프로젝트"라고 시작했거든요. 전시는 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진행한 거고요.

**CM:** 한국 사회가 이런 작업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잘 수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 일까요? 혹시 교육기관이나 미술학교,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기관과 이런 작업을 함께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KS:** 저도 이 부분을 특이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수많은 게이들이 커밍아웃을 두려워하고,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나 잘못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예술의 어떤 아우라가 덮어씌워질 때에는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용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의 정서에 맞게 이를 중계하고 매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해요. 하지만 이런 작업을 크게 해서 큰 이슈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이런 성과물들을 작게 작게 기획하고 싶어요.

친구사이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초청 강연, 세미나 등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술과 결합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적 자원이 더 풍성해져야 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작업에 우호적인 단체들도 국내에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기금은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서 받을 수 있어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경우의 아마 없을 거예요.

**CM:** 한국의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미술가들에게 배울 점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 인천에서 국제여성미술가 비엔날레가 열리고, 여성의 관점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를 다루는데요. 이런 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비엔날레나 다른 대학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서 이 괴리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요?

**KS:** 저도 그런 프로젝트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첫발을 디뎠을 뿐입니다. 저도 약간 놀란 사실인데, 게이 커뮤니티 내에는 문화적 자원이나 활동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거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사회 운동이나 인권 운동 쪽에서 할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인력도 모자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 작은 성과를 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게이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와 대중들과 소통을 하는 문화기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좀 더 커뮤니티 내부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훨씬 더 적극적인 사회적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CM:** 아직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더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으신지요?

**KS:** 한국의 전반적인 문화 상황에는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존재해요. 그 안에 있는 LGBT 문화는 훨씬 더 열악하고요. 이들의 문화 예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이 풍성해지고 발전하기 위한 출발점은 커밍아웃에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한 커밍아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커밍아웃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LGBT의 다양한 문화가 생성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커밍아웃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CM:** 감사합니다.